

# CBDC·예금토큰, 투 트랙 유력... '원화코인 정책' 새 국면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디지털결제 원화위상 높일 것”  
한은,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에 동의  
단 ‘통제력 높은 구조 발행’ 지지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첫날 'CBDC(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언급하면서, 향후 '원화코인' 발행 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CBDC, 예금토큰이 공존하는 '투 트랙 구조'의 도입이 유력해져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취임식에서 'CBDC'와 '예금토큰'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비(非) 금융권이 발행을 주도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진행됐던 만큼, 통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뢰성이 높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원화코인의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송 총재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화폐에 대한 신뢰와 지급결제의 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중앙은행의 시대적 책무”라며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제협력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 원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형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가치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기존 통화와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각종 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다만 통화 가치와 연동돼 발행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 간접적으로 늘려 화폐 가치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민

간 기업이 발행을 담당하는 '은행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이 유력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혁신을 활성화하고, 높은 운영 효율성과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와 여당 주도로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다.

한국은행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스

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의 특성과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제력이 높은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에 참여하는 만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통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은행예금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한 토큰을 말한다. 현금과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은행예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만큼 신뢰도도 높다. 또한 사용 즉시 은행이 이를 회수하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 ◆ '투 트랙 구조' 도입될까

신현송 총재는 CBDC와 예금토큰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병존하는 '투 트랙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편결제 등 시장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민간 발행 코인이 주도권을 가져가되, 수출대금 결제와 같이 신뢰성이 우선시되는 분야에서는 CBDC와 예금토큰이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형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법 권한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에 있지만, 업계에서는 신 총재가 주장하는 '투 트랙 구조'가 실제로 도입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및 영향력이 분명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곧 통화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설계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적인 입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와 같은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한은의 핵심 관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통화 단일성 유지,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의견 제시와 정책 공조 과정에서 법안의 설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쟁점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불황형 대출' 카드론, 3개월 연속 증가세

카드사 9곳, 지난달 말 43조 육박  
KB 증가폭 349억, 현대 340억 등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에 급전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론 잔액이 곧 43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9곳(삼성· 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카드)의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941억원으로, 43조원에 육박했다. 전월 말보다 920억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다. 카드론은 지난해 12월 42조3240억원에서 올해 1월 42조5850억원, 2월 42조9021억원, 지난달 42조9941억원으

로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는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실행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기준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인 곳은 KB국민카드(+349억원)다. 현대카드(+340억원), 하나카드(+302억원), 롯데카드(+212억원), NH농협카드(+46억원), 비씨카드(+12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한카드(-69억원), 우리카드(-121억원), 삼성카드(-150억원)는 감소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2월 말 카드론 잔액이 42조 9021억원으로 43조원에 근접했고, 3월에도 그 증가세가 이어간 걸 미루어보면 이번 달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을 넘어설

여지가 충분하다”며 “다만, 경기 둔화와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 쏠림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도 카드론 잔액은 42조 9888억원으로 43조에 육박했으나, 다음달 42조3720억원으로 줄며 43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당시에 달리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라서 돌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 중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카드사에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1.5% 이내로 제한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계대출 목표치(3~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라클라체자이드파인' 투시도.

/GS건설

## 전용 59㎡ 청약 최고가점 74점 당첨

노량진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전용 106㎡ 50점 당첨자도 나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노량진6구역 재개발) 청약에서 전용 59㎡의 당첨 최고가점이 5인 가구 만점인 74점으로 집계됐다. 전용 106㎡의 경우 50점대 당첨자가 나왔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라클라체자이드파인 1순위 청약에서 전용 106㎡의 당첨 가점은 최저 56점, 최고 66점으로 7개 주택형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전용 59㎡은 최저 64점, 최고 74점으로 가점이 가장 높았다. 64점과 74점은 각각 3인가구와 5인 가구 기준 만점이다. 전용 84㎡의 당첨 가점은 62~63점에 분포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각각 32점과 17점을 받는다. 만점은 84점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에 따른 가격 부담이 이번 당첨 가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

형 평형일수록 분양가가 높아 소형 평형에 고가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전용면적 59㎡의 최고 분양가는 22억880만원이다. 전날 당첨 결과를 발표한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20억4610만원)보다 가격이 높다. 오티에르 반포의 최저 당첨 가점은 4인가구 기준 만점인 69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수요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용산구로 쏠리는 추세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지하4층~지상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의도·용산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을 이용할 수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

단지는 노량진 뉴타운 분양 첫 타자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노량진 뉴타운은 최근 1구역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본격화에도 올랐다. 8개 구역 모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총 9000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채리 인턴기자 cr56@

## '자이 굿즈 조명'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GS건설, 매그닷·이그니스 2종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2종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인 제품 디자인 어워드로, 약 40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혁신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 제품에는 우수한 디자인 품질을 인정하는

'Red Dot'을 수여한다.

이번 수상작은 휴대용 마그네틱 조명 '매그닷(magDot)'과 테이블 램프 '이그니스(IGNIS)'다. 두 제품 모두 자이가 공간에서 축적해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담은 굿즈로 평가받았다.

'매그닷'은 아파트 전장 히든 조명의 광원을 모티프로 한다. 책상 조명뿐 아니라 키링이나 손목 스트랩 형태로 휴대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

'이그니스'는 촛불을 켜는 아날로그

적 경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선 테이블 램프다. 자이의 리브랜딩 키워드 'Re-ignite'에서 착안해 이름을 붙였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을 일상으로 확장한 브랜드 전략이 글로벌 디자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이의 브랜드 굿즈가 단순 사은품이나 관촉물이 아니라 고객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오브제로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채리 인턴기자